



## '운명'으로부터 '황홀한 절망'으로

- 「이어도」를 읽고 -

윤도영\*

고등학교 때였다. 지금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도 그때는 가슴 졸이며 살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토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평일엔 입시와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위축되어 지냈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대학생이 된 모습을 상상하며 부산대 앞을 방황했다. 굳이 방황이랄 것 까진 없지만 차도를 가득 메우는 인파 속에 묻혀서 잠시나마 자유롭다는 편안함을 느끼곤 했다. 부대 정문 앞 사거리에서 범어사쪽 도로는 다른 곳보다 그나마 한산한 편이다. 주택가들이 군데군데 산재해 있어선 지 술집 등 유흥업소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나마 적은 편이다. 친구들과 이 도로를 따라 걸어서 부대에 들어왔다. 학교와 성적과 시험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가 잠시 주변 가게의 진열대나 행인들을 관찰했다. 그중 나는 가게 간판을 유심히 봤다. 눈에 잘 띄려고 간판을 독특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경우가 태반이다. 별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도 내용이 참신해서랄까, 보고 있노라면 뭔가 연상되면서 뇌리에서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간판도 종종 있었다. 나는 이런 간판을 두고 '음미할 가치가 있다'는 말을 쓰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어도'였다. 물론 이칭준씨의 「이어도」란 존재를 모를 때였다. 그 '이어도'란 주점이었는데, 가게 이름을 써 운치 있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었다. 지금도 그 가게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 있다면

\* 해사대학 해양경찰학과

「이어도」를 읽은 친구들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른 저녁이라도 상관없다. 가게 안의 어두운 조명은 시간을 망각하게 할 테니까 말이다. 야릇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어도의 미인이나 저는 걸음 때문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양주호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에 술집 종업원이나 구석진 안방자리를 더 유심히 살필지도 모르겠다. 취기가 돌면 구슬프게 이어도타령을 부르고 싶은 충동이 일겠지만 음을 모르니 그만둘 수도 있다. 아니다. 분명 주점 '이어도'의 주인양반은 「이어도」를 읽어 본 사람일 게다. 내부를 제주도풍으로 꾸미고 분위기를 살리느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 스피커에선 청송맞은 이어도타령이 흘러 나올테니, 따라서 흥얼거리면 된다. 술에 취합인지 노래에 취합인지, 소설에 취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게문 닫을 시간이 좀 지나서 열큰한 기분으로 '이어도'를 나오는 순간 술이 깨기 시작한다. 현실이다. 새벽 공기는 차다. 거리는 적막하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와 취객들 소리만 새벽의 고요함을 깰 뿐이다. 골목길 속 깜박이는 불빛의 정체는 순찰차이다. '94년형 세피아일게다. 난 머리가 짧으니 불심검문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잠시나마 '이어도'에 들어가서 선우현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감상에 만족한다.

다시 고등학생 때였다. 수능치고 대학을 거의 확정지었을 무렵이었다. 내게는 동생이 한명 있다. 이 녀석은 남들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길 꺼려하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남들과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걸 즐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운전면허학원 다니는 것 말고는 별로 특별히 할 일없이 '허공에 뜬 사나이'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동생 책상 위에서 열려진 채 한쪽 구석에 있는 CD케이스를 발견했다. 음악 CD였다. '노브레인'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언더 락 그룹이었다. 심심함 반 호기심 반으로 음악을, 아니 노래를 들었다. 제목 중에 '바다 사나이'라는 장르에 내가 가야할 길이라서 그런지 왠지 관심이 가는 곡이 있었다. 악쓰다가 쉬어버린 것 같은 보컬의 목소리와 어울리는 가사였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소리 귓가에 들려/ 바다는 말이 없지 소주 한 병 손에 들고/  
난 마도로스 김 인생은 여기 있다/ 태평양을 향해하는 나는야 바다사나이/  
다 부질없어 난 바다사나이'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흥얼거리고 다녔다. 노래방에 갈 때면 이 곡

을 찾았지만 없었다. 친구들은 이 노래를 모른다고 했다. 그럴수록 이 노래에 대한 애착이 깊어갔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곡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종의 자기암시라고 할까, 지금 나는 그 암시대로 가고 있다. 바다하고는 별로 친숙하지 않았던 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륙지방 출신이라서 그런지 여름방학 때 주로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를 다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울-당시엔 국민학교였다- 지금은 통영인 충무에서 2년 산 적이 있지만 아직 바다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내가 바다사나이가 될 줄이야. 아직 헤엄도 못 친다. 물이 무섭다. 입학원서를 접수하러 대학교로 가던 길에 저녁놀이 붉게 물든,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바다같이 일렁이는 바다를 달리는 차안에서 봤다. 이 장엄한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름다웠다. 지금은 매일 볼 수 있는 바다지만 그때 그 바다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 영향이 컸으리라, 진로를 바다로 굳힌데는.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인 것 같았다. 같이 있던 어머니와 태종대를 구경왔던 외숙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앞으로 마도로스가 된다. 가사처럼.

얼마 전 신문에서 '전설의 섬, 파랑도 발견!'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파랑도'란 정식명칭이고 현지인들 사이에선 '이어도'로 불린다고 했다. 제주 어민들 사이에선 전설의 섬이라고 했다. 소설 「이어도」는 전설을 바탕으로 쓰여졌던 것 같다. 이 섬은 수면보다 낮아서 주로 물 속에 잠겨 있다. 수위가 낮아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이다. 동백섬 앞의 오륙도와 비슷한 경우이다. 제주 어민들에게는 이상향의 섬이었던 이어도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느덧 마음속에 자리잡아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실제의 이어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해도에 섬 하나가 추가되어, 보다 정확한 해도제작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섬은 이미 섬사람들의 마음 속에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대학생 때이다. 1학년 여름방학 중 제주도에 갔었다. 동아리를 한군데 들었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명분으로 갔었다. 승선했을 때 미지의 대륙을 찾아 떠나기 직전의 탐험가마냥 들떠있었다. 여객선은 천천히 항

구를 벗어났다. 갑판 위에는 즐거운 표정이 역력한 사람들로 붐볐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속이 매스한게 약간 어지러웠다. 배멀인가 보다. 객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아 누웠다. 그리고는 화장실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12시간의 지루한 항해 끝에 제주항에 도착했다. 협재 해수욕장을 마주보고 있는 비양도라는 섬에서 10일 가량 머물렀다. 비양도의 바닷물은 무척 깨끗했다. 배 위에서 내려다보니 물고기떼들이 보였고 바닥까지 볼 수 있었다. 작년에 왔던 선배들은 물이 더러워졌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부산의 여느 바닷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부산의 바닷물도 오염되기 전에는 이렇게 깨끗했을 거라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비양도의 도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 같았다. 항구에는 조금만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었다. 그물을 털어서 멸치를 떨구었다가 네모난 나무상자에 담았다. 해녀같이 보이는 아줌마들이 허리춤에 그물을 차고 지나갔다. 그 그물 안에는 소라가 가득했다. 참소라라고 했다. 몇 마리 얻어서 삶았다. 그리고 초장을 부어 밥과 비벼먹었다.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었다. 이네들에게는 바다가 젖줄이고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싶었다.

「이어도」의 공간적 배경인 제주도,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우리 나라에서 이국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천남석이 여인에게 제주도를 벗어나라고 했지만 정작 그도 그렇게 싫어하던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토록 싫은 존재인 섬을 왜 떠나지 못하는가하는 의문이 일었다. 어떤 미지의 힘이 섬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게 아닐까? 그 미지의 힘이란 바로 섬을 사랑하는 마음, 무의식 속에 잠재한 섬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 작품 중에 섬사람들은 모두 섬을 사랑한다고 했다. 천남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불우했던 유년시절 때문에 섬을 두려워했다. 누구보다도 섬을 사랑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행위로 사랑을 표출한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섬을 미워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어도의 여인도 섬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을 떠나지 못할거라고 양주호는 자신있게 말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섬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섬사람들이 섬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섬 주위를 맴도는 것은 운명이라고들 말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한다. 거기에 대해 난 이 말을 첨가

하고 싶다. ‘운명을 따라 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에서 태어난 사실이 운명이다’라고 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보고 느끼고 짠 바닷바람 속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 바다 아닌 곳에서는 바다의 강한 향수가 밀려오리라. 힘들지만 운명에 순응하며 인내하는 마음은 세계 어느 바닷가에서나 공통된 현상이다. 이들에게는 바다란 단순한 생계유지수단이 아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할머니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조들의 유골이, 혼이있는 무덤인 동시에 마음의 고향이다. 어느 곡의 가사를 빌리자면 ‘우리의 고향은 태평양이요/우리의 무덤이 될 태평양이다’라고 말이다.

작품을 읽고 나서, 천남석 기자가 실종된 궁극적인 이유가 궁금했다. 양주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섬을 보고 나서 그 섬으로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그걸 어제도 무척 황홀한 절망이었으리라 말했던 겁니다.” 즉, ‘그는 이어도를 보고 나서 그 이어도로 가야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라는 풀이가 된다. 넌지시 자살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선우현도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섬사람들에게 이어도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존재이다. 천남석 기자에게 이어도를 찾는 여정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그의 이어도-섬을 사랑하고 있다는 본심-를 찾는 여행이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차츰 그의 본심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당혹감, 지금껏 섬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황홀한 절망’을 맛보고 이어도에 가야겠다는 욕망을 억제 못한 것이, 만약 자살이 맞다면 그 이유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황홀한 절망’은 본인에게는 일종의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점에서 ‘절망’이었고 섬을 무척이나 사랑했었다는 사실에서 ‘황홀하다’고 표현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감상적인 것 같은 이야기요 관념적인 소설 같기도 하다.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뭐라 평하든 그건 설득력이 약할 것이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본다. 이청준씨의 「소문의 벽」, 「매잡이」, 「병신과 머저리」, 「석화춘」 등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다. 다소 난해하고 관념적이고 이성과의 사랑이야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찾는 독자는 실망할 거라는 어느 평론가의 평을 접한 뒤라 이 「이어도」도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하지

만 ‘사회의 한다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지적인 즐거움을 준다고, ‘그런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은 대단하다’는 역시 같은 평론가의 평도 접했다. 처음 다 읽고 나서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도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4페이지에 달하는 작품해석을 읽어 봤지만 더 헛갈릴 뿐이었다. 독자의 수준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까 내식대로 해석을 해봤고 글을 쓰다 보니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작가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글을 쓰는데도 머리를 짜가며 고심하는데 몇백 페이지 분량을 쓰는 작가는,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몇 달을 많게는 몇 년을 투자한다고 하니 말이다.

흔히들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니 자연의 보고니 하면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강요한다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갈수록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해양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옛부터 바다를 업신여겼던 인습의 영향이 크다. 이런 인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해양에 종사하는 사람을 ‘뱃놈’이라면서 무시하게끔 하는데 한몫을 해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환이 없는 한 우리 해양의 미래는 밝을 수 없고, 따라서 미래 한국의 장밋빛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